

파킨슨병특집

파킨슨병의 증상과 진단

파킨슨병의 첫 증상들

파킨슨병은 아주 서서히 시작되어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병이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이 발견되어 병을 의심하게 될 때에는 이미 수년전부터 아무도 모르게 특정위치의 뇌세포가 파괴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첫 증상도 역시 매우 서서히 나타나면서 또 어떤 증상이 반드시 먼저 나타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증상만이 나타날 때의 파킨슨병 진단은 매우 어렵습니다. 파킨슨병의 주요증상으로는 운동완서와 강직, 그리고 진전증, 즉 떨림이 있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운동완서나 강직은 모르는 채로 주로 떨림을 주소로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떨리는 증상은 환자나 주위 사람들에게도 쉽게 관찰되는 증상이나 실제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운동완서와 강직임에도 환자들은 대부분 이 증상들은 노인이라면 그런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건강한 다른 동년배에 비해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증상입니다.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파킨슨병의 아주 초기에는 그 증상이 특징적이지 못하고 아주 모호해서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피곤함이 계속되고나, 몸이 곳곳이 아프고, 웬지 힘이

없고 기분이 이상하고, 쉽게 화내는 등의 증상들이 병의 아주 초기에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은 다른 여러가지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아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다른 증상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운동완서나 강직같은 증상은 환자 스스로가 느끼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파킨슨병의 첫 증상은 대개 50, 60대의 나이에 나타나게 되나 훨씬 일찍부터 나타날 수도 훨씬 늦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40세 이전에 증상이 시작되면 약년성 파킨슨병(Juvenile Parkinsonism)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대개 30세 정도의 나이에 첫 증상을 보이나 예외적으로 20세 이전부터 발병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약년성 파킨슨병은 전체 파킨슨병 환자의 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각한대로 잘 안 움직여지는 증상)같은 약제의 부작용이 치료 초기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파킨슨병이



김 상 운
(한림의대 신경과 교수)

노년에 발병한 경우 특히 70세 이후에 나타난 경우에도 치료 방침은 보통의 파킨슨병 환자와 같으나 환각, 정신착란 등과 같은 정신과적 부작용이 치료초기부터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약제를 사용할 때 매우 적은 용량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가 많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을 진찰할 때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이러한 증상이 이 병으로 인한 것임 니다라고 설명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분은 원래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파킨슨병의 증상은 매우 서서히 나타나서 조금씩 심해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매우 심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병의 증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내는 노인 분들이 매우 많으며 환자 자신도 이러한 증상은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떤 질환들 특히 퇴행성 질환이라고 불리는 병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확실한 이 상이며,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뒷목이나 허리의 통증등이 병의 초기에 나타날 수 있고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들

파킨슨병에서는 매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몸의 떨림(진전)
2. 움직임의 둔해짐(운동완서 = 운동불능증, 무동증, 서동증)
3. 근긴장도의 증가(강직=경직)

1. 몸의 떨림(진전)

파킨슨병에서 관찰되는 진전증(tremor), 즉 떨림은 주로 환자가 쉬고 있을 때 나타나며 자발적인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떨림이 감소하고, 수면 중에는 떨림의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이런 진전증을 안정시진전이라고 합니다. 즉 손을 가지고 아무 일도 안하면서 무릎위나 의자에 손을 가만히 얹어 놓고 있는 상태에서는 떨림이 심하고 물 컵을 들거나 물건을 잡고 있으면 떨림이 감소하게 되어 초기의 파킨슨병 환자에서 보이는 진전증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큰 장애가 되지는 않으나 주위 사람들

약물치료시 노인환자들에서의 빈번한 부작용 등을 고려 정상압 수두증의 3대 특징은 피질하 치매, 보행장애, 요실금 혈관성 치매의 여러가지 약물들의 약효 대부분 미지수

약년성 파킨슨병이 일반적인 파킨슨병과는 다른 형태의 질환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식이 아직 없는 상태이나 치료 방법은 모두 같습니다. 발병 연령이 낮은 환자들은 약물 치료, 특히 L-dopa라는 약물에 훨씬 좋은 반응을 보이거나 증상의 심한 변화나 운동장애(몸의 일부분이 저절로 움직이거나

니다. 환자들이 파킨슨병을 생각하게 되는 첫 증상은 대개의 경우 손의 떨림이나, 걸음걸이의 이상, 허리가 굽는 자세의 이상, 우울증, 허리통증, 소변장애 등으로 손의 떨림을 제외하고는 내과, 정신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등의 다른 과로 찾아가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

가끔 글씨를 쓸 때 글자의 크기가 점차 작아지거나 말할 때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을 주소로 하여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걸기가 어렵고 쉽게 피곤해 지거나 걸을 때 팔의 흔들림이 전혀 없는 것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게 되어 파킨슨병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환자는 매우 성가시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에는 안정시 진전과 함께 체위성 진전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동반된 체위성 진전은 환자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198호에서 계속>



반드시 의사·약사에게 상의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뇨성 신경장애, 신경통으로 고생하십니까?

당뇨환자의 80% 이상이 다음과 같은 당뇨성 신경장애 증상을 보입니다.

- 팔다리에 무력감증, 저림, 근육통이 나타난다.
 - 시력이 떨어지며 물체가 이중으로 보인다.
 - 발기부전증이 나타나며 배뇨가 곤란해진다.
- 이런 증상은 신경조직의 손상이 원인이므로 신경조직을 재생시켜 주어야 개선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제는 당뇨병으로 손상된 신경조직에 활력을 줍니다.

비타민제에는 당대사를 촉진하며 신경세포의 ATP대사에 작용하는 베포티아민, 신경전달물질의 대사에 관여하는 엽산 피리독신, 신경핵의 합성 및 신경조직을 재생하는 시아노코발라민 등의 신경비타민이 고단위로 함유되어 있어 당뇨성 신경장애, 신경통, 기타 소모성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래서 고단위, 약효도 다릅니다.

비타민제 50mg 1캡슐당 성분·함량	
베포티아민	69.15mg
엽산피리독신	50mg
시아노코발라민	500µg

당뇨성 신경장애, 신경통, 기타 소모성질환 치료제



표준소매가격 : 50mg, 100캡슐 / 23,000원



'비타민'에 대한 안내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 1가 2동 656-408
한일약품(주) 마케팅부 '비타민' 담당자
전화문의 : (02)4609-786-8